

चित्रा स्पर्धानः! स्पादिः निष्यं पेत

※엠바고: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4년 1월 24일(수)

윤석열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

- 대통령, 공정하게 경쟁하는 자유 시장경제 구축이 경제발전의 기반 -
- 세계은행 총재,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 국가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 될 것 -
- 세계은행 총재, 6G 시대에 한국의 디지털 표준설정 및 가교 역할 기대 -
 - 대통령,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을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4,수)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입니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 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

보도자료

담당 경제금융비서관실

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 습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 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 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 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 (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

보도자료

담당 경제금융비서관실

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방가 총재는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끝>